


강원지역 비은행 금융기관 리스크 점검

2023. 7.

본 보고서의 내용은 작성자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작성자 이름을 반드시 명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

작성자 : 권기백 과장, 정준호 과장, 김주현 조사역
조연자 : 이현영 팀장



차 례

〈 요약 〉

I. 검토 배경 1

II. 영업 현황 3

- 자산
- 부채 및 자본
- 수익

III. 경영지표 점검 8

- 자본적정성
- 자산건전성
- 유동성
- 수익성
- 재무건전성 종합평가

IV. 주요 리스크 요인 점검 13

- 가계대출 부실 확대 가능성
- 부동산PF 부실 가능성
- 대규모 예금인출 가능성

V. 평가 및 시사점 19

〈참고〉 사업보고서상 주요 경영지표 20

〈 참고문헌 〉

< 요약 >

최근 대출금리 상승,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연체율 증가, 부동산PF 부실 가능성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원지역은 비은행금융기관이 금융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데다 최근 은행에 비해 빠르게 대출이 늘어난 만큼 비은행금융기관 건전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비은행예금기관(상호금융, 신탁, 새마을금고)의 경영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자 한다.

'22년중 강원지역 비은행예금기관은 7개도(수도권 및 광역시 제외)에 비해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자산은 안전자산인 현금 및 예치금이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수신 위주의 증가가 지속되었다. 또한 '22년중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도 다른 지역에 비해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22년말 기준 강원지역 비은행예금기관의 주요 경영지표를 살펴보면 ① 단순자기 자본비율(중위값 기준)은 7.85%로 전년대비 0.12%p 하락, ②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94%로 전년대비 0.18%p 상승, ③ 유동성비율은 81.6%로 전년대비 10.2%p 상승, ④ 총자산순이익률은 0.59%로 전년대비 0.1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동성과 수익성이 개선된 반면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은 다소 악화되었다. 최근 하위 분위 비은행예금기관의 손실흡수능력이 약해지고 전 업권에서 대출자산의 부실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높은 대출금리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22년 하반기 이후 침체되었던 부동산경기의 반등세가 미약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대출자산의 추가 부실 가능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유동성비율은 개선되었지만 최근 미국 중소형은행이 유동성 위기로 파산하는 사례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대규모 예금인출 가능성도 점검하고자 한다.

유동성과 수익성은 개선되었지만,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은 악화

<비은행예금기관 주요 경영지표 종합¹⁾>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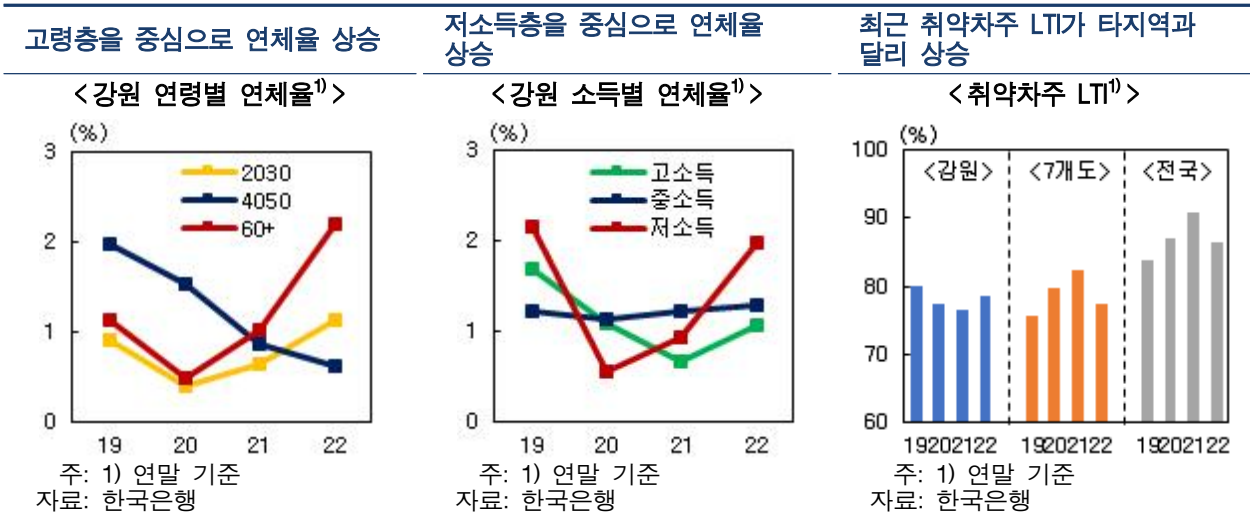
| | 중위값 | | | 하위 10%값 ²⁾ | | |
|---------------------|--------|--------|---------|-----------------------|--------|---------|
| | '21(A) | '22(A) | 증감(B-A) | '21(A) | '22(A) | 증감(B-A) |
| 자본적정성 (단순자기자본비율) | 7.97 | 7.85 | -0.12 | 5.30 | 5.09 | -0.21 |
| 자산건전성 (고정이하여신비율) | 0.76 | 0.94 | 0.18 | 2.20 | 2.73 | 0.53 |
| 유동성 (유동성비율) | 71.4 | 81.6 | 10.2 | 44.1 | 49.1 | 5.0 |
| 수익성 (총자산순이익률) | 0.45 | 0.59 | 0.14 | 0.17 | 0.25 | 0.08 |

주: 1) '22년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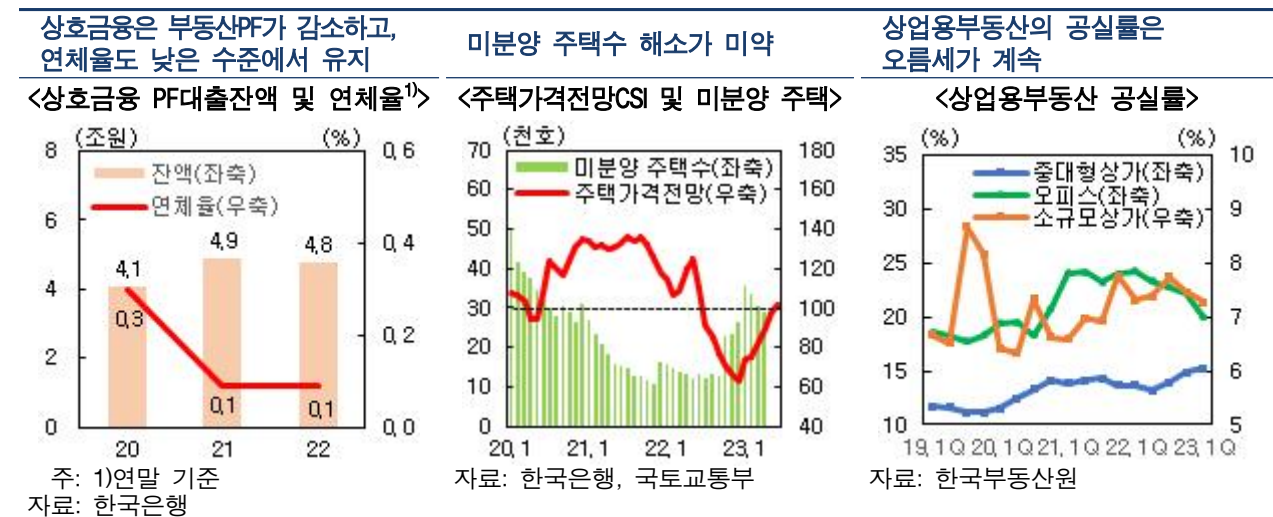
2) 자산건전성(고정이하여신비율)은 상위 10%값을 의미

자료: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먼저 가계대출 부실 확대 가능성을 살펴보면 강원지역 비은행예금기관 가계대출 연체율은 7개도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며, 고령층과 저소득층의 연체율이 큰 폭 상승하였다. 또한, 차주의 상환부담을 나타내는 LTI는 고령층과 저소득층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데다 취약차주의 LTI도 최근 상승하는 모습이다. 향후 경기회복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우 상환부담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부실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부동산PF 부실 가능성을 살펴보면 강원지역의 부동산PF는 토지거래 실적과 건축허가면적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증가세를 밑돌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내 비은행예금기관 여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호금융의 전국 기준 부동산PF는 다른 업권에 비해 규모도 작고 증가폭도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강원지역 비은행예금기관은 부동산PF 대출 관련 리스크가 타지역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주택시장의 두드러진 회복이 나타나지 않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냉각되거나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등에 대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예금인출 가능성을 살펴보면 강원지역 비은행예금기관은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일상적인 예금인출 요구에 대응할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최근 예금보호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이 증가하고 예금자들이 금리 수준에 민감하게 반응함에 따라 대규모 예금인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이전보다 높아졌다. 더구나 강원지역내 비은행예금기관의 조합 규모가 소규모인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는 경우 대규모 예금인출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산규모가 타지역대비 작은 수준

조합원수도 타지역대비 적은 수준

<조합별 자산규모>

| (억원, %) | 평균 | 비중 | | | |
|---------|-------|--------|-------|--------|--------|
| | | 5백억 미만 | 천억 미만 | 2천억 미만 | 2천억 이상 |
| 강원 | 2,050 | 5.1 | 19.0 | 49.4 | 26.6 |
| 7개도 | 2,297 | 3.2 | 10.7 | 51.8 | 34.4 |
| 전국 | 2,764 | 4.0 | 13.5 | 51.6 | 31.0 |

주: 상호금융, 신협, 새마을금고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조합별 조합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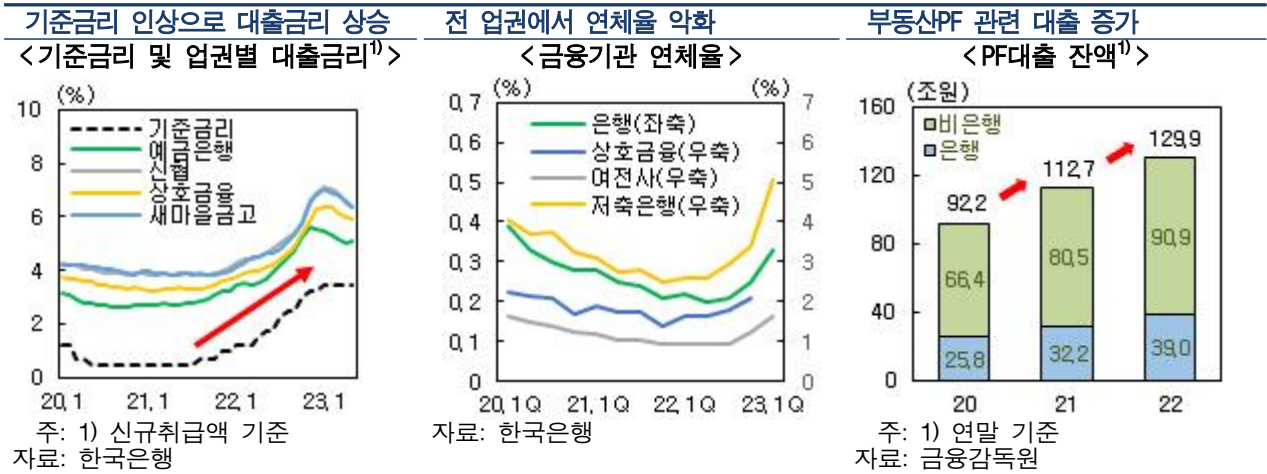
| (명, %) | 평균 | 비중 | | | |
|--------|-------|--------|-------|--------|--------|
| | | 5백명 미만 | 천명 미만 | 2천명 미만 | 2천명 이상 |
| 강원 | 2,945 | 7.7 | 13.4 | 35.9 | 43.0 |
| 7개도 | 3,564 | 3.8 | 7.7 | 34.5 | 54.1 |
| 전국 | 4,221 | 4.9 | 9.1 | 31.0 | 54.9 |

주: 상호금융, 신협, 새마을금고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강원지역 비은행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최근 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손실흡수능력이 약화되고 대출자산의 부실이 확대되는 등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이 악화되는 모습이다. 향후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긴축적인 금융여건이 지속될 경우 가계부채, 부동산PF 등이 부실화되어 자산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감축을 유도하는 등 잠재리스크를 관리하는 한편 지자체 및 비은행예금기관에서 시행중인 부동산PF 관리 방안을 차질없이 지속해나가는 가운데 주택 및 상업용부동산 관련 지표를 면밀히 모니터링 함으로써 부실 위험에 대비하여야 한다. 특히 강원지역내 비중이 높은 소규모 조합의 경우 금융 불안시 대규모 예금인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한편 앞으로 강원지역 비은행예금기관의 금융불안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감독당국 및 정책연구기관 간 TF 구성 등을 통해 비은행예금기관 경영자료의 접근성과 수집용이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1. 검토 배경

1.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에 따른 연체율 증가, 부동산PF 부실 가능성 등으로 인해 중소형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팬데믹(코로나19) 기간중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국내 경제의 회복 전망 및 높은 물가 오름세로 '21.8월을 기점으로 연이어 인상되어 대출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하자 금융기관 연체율은 '22년 하반기부터 상승하였고, 부동산경기도 하강하면서 그동안 대폭 늘어난 비은행권 부동산PF가 부실화 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SVB 등 미국 중소형은행 파산 사례¹⁾와 같이 국내에서도 지역 비은행금융기관에서 대규모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 강원지역은 비은행금융기관이 금융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데다 최근 은행에 비해 빠르게 대출이 늘어난 만큼 비은행금융기관 건전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예금은행 보다 비은행금융기관이 활성화된 지역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개별 조합의 형태를 가진 비은행금융기관이 금융부문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2년말 기준 강원지역 비은행금융기관의 수신액은 지역내 수신의 54.1%로 전국(51.8%)과 유사하나, 여신액과 점포수의 비중은 각각 48.7%, 83.7%로 전국(각각 28.9%, 77.4%)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또한, '20년 이후 비은행금융기관의 여신이 은행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강원지역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영현황 및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1)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ilicon Valley Bank)이뱅크런으로 인해 파산한 사건이다. '23.3.8일 실리콘밸리은행이 거액의 채권 매매 손실(18억달러, 2조4천억)을 발표한 후 이에 불안감을 느낀 예금자들의 급격한 예금 인출로 '23.3.10일 해당 은행의 은행업허가가 취소되고 파산이 선고되었다.

전국보다 큰 비은행금융기관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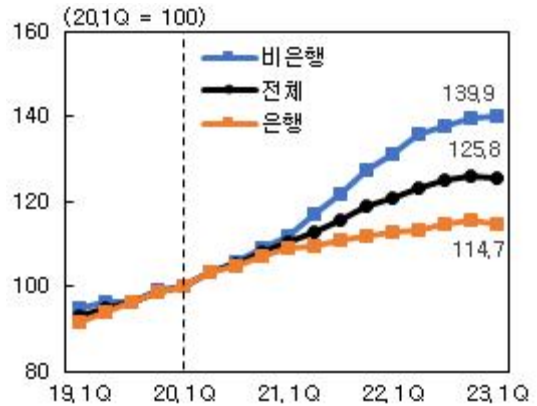
<지역내 은행·비은행금융기관 비중¹⁾>

| | | (%, %p) | | |
|-------------|-----|---------|---------------------------|---------------------------|
| | | 은행 | 비은행 금융기관 ²⁾ | 비은행 예금기관 ³⁾ |
| 전국 (A) | 수 신 | 48.2 | 51.8 | 17.5 |
| | 여 신 | 71.1 | 28.9 | 22.4 |
| | 점포수 | 22.6 | 77.4 | 13.5 |
| 강원 (B) | 수 신 | 45.9 | 54.1 | 39.7 |
| | 여 신 | 51.3 | 48.7 | 48.1 |
| | 점포수 | 16.3 | 83.7 | 24.4 |
| 차이 (B-A) | 수 신 | -2.2 | +2.2 | +22.2 |
| | 여 신 | -19.8 | +19.8 | +25.6 |
| | 점포수 | -6.3 | +6.3 | +10.9 |

주: 1) '22년말 기준
 2) 상호금융, 우체국예금, 신탁회사,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탁, 자산운용사
 3) 상호금융, 신탁, 새마을금고
 자료: 한국은행

은행 대비 빠른 비은행금융기관 여신 증가세

<강원지역 여신 추세>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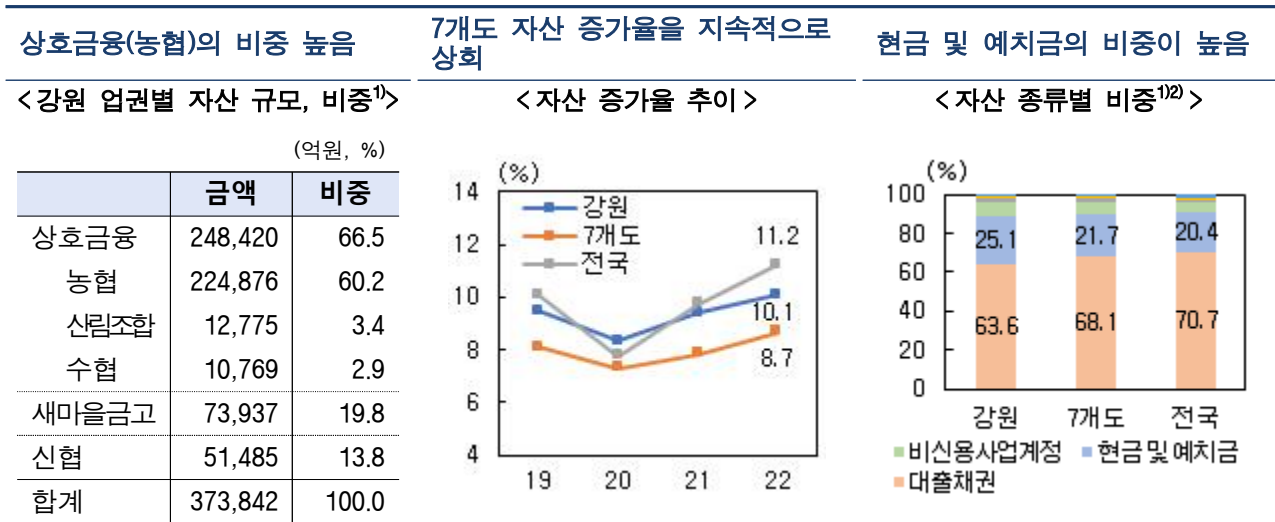
3. 본고에서는 비은행예금기관²⁾(상호금융, 신탁, 새마을금고)의 경영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증권,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분석은 주로 전국 단위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는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본사(점)에서 전국 기준으로 경영현황 관련 자료를 공시할 뿐 지역별로 구분된 자료를 별도로 발표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이들 기관의 경우에는 본사 차원에서 리스크를 관리함에 따라 지역별 금융리스크를 별도로 분석하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개별 금융기관(조합) 단위로 경영지표가 발표되는 비은행예금기관(상호금융, 신탁, 새마을금고)을 대상(강원지역 198개 조합)으로 경영현황과 주요 리스크 요인³⁾을 점검한 이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비은행금융기관은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을 의미하며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투자업자, 보험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은행과 유사한 여수산업무를 하지만 취급업무의 범위가 은행에 비해 한정적이고 영업대상도 사전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기관으로 상호금융, 신탁, 새마을금고 등이 해당한다.
 3)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①연체율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화, ②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부동산PF 부실화, ③해외에서 발생한 대규모 예금인출 가능성을 들 수 있다.

II. 영업 현황

◆ 자산 현황

4. '22년말 강원지역 비은행예금기관의 자산은 37.4조원으로 전년대비 10.1% 증가하였으며, 7개도⁴⁾ 평균 자산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다. 업권별로 보면 상호금융⁵⁾이 24.8조원(농협 22.5조, 산림조합 1.3조, 수협 1.1조)으로 비은행예금기관의 약 66.5%를 차지하였으며, 새마을금고는 7.4조(19.8%), 신협은 5.1조(13.8%)로 나타났다. 강원지역 자산 증가율 추이를 보면 팬데믹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이 침체되면서 '20년 중 다소 낮아졌다가 이후 높아지는 등 7개도와 같은 흐름을 나타내었다. 다만 그 수준은 7개도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다. '22년중 강원지역 비은행예금기관의 자산 증가율은 10.1%로 7개도(8.7%)보다 1.4%p 높은 수준이다.
5. 자산 종류별 비중을 보면 대출채권이 63.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현금 및 예치금⁶⁾ (25.1%), 유가증권(7.4%) 순으로 나타났다. 대출채권의 비중은 63.6%로 7개도(68.1%) 및 전국(70.7%)에 비해 낮은 반면, 현금 및 예치금의 비중은 25.1%로 7개도(21.7%) 및 전국(20.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현금 및 예치금의 대부분이 안정적인 자산임을 고려하면 강원지역 비은행예금기관의 자산은 타지역 대비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1) '22년말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자료: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주: 1) '22년말 기준
 2) 자산총계를 대출채권, 현금 및 예치금, 유가증권, 유형자산, 기타 자산, 비금융사업계정으로 구분
 자료: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4) 인구, 경제 규모의 유사성 등을 감안하여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7개도(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와 비교한다.

5) 농협, 산림조합, 수협을 포함한다.

6) 예치금은 조합이 중앙회 또는 다른 금융기관 등에 맡긴 자금으로 현금화가 용이한 자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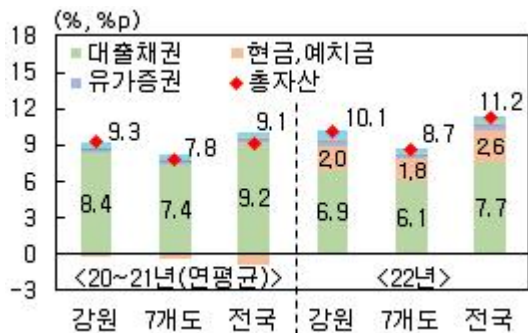
6. '22년중 자산 증가율을 구성항목별로 살펴보면 현금 및 예치금의 기여도가 확대되었다. 팬데믹 이후 경제활동 위축에 대응하여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한 '20~'21년 중 연평균 자산 증가율은 9.3%로, 이 가운데 8.4%p는 대출채권의 증가에 기인하였다. 그러나 통화정책기조가 전환된 '22년중에는 여신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자산 증가율(10.1%)에 대한 대출채권의 기여도(6.9%p)가 다소 낮아진 모습이다. 반면 현금 및 예치금의 기여도는 '20~'21년중 0.0%p로 미미하였으나 '22년중에는 2.0%p로 확대되었다. 자산 증가에 대한 현금 및 예치금의 기여도가 높아진 현상은 강원지역뿐만 아니라 7개도 및 전국 단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21.8월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여신금리 상승으로 대폭 늘어난 이자수익의 상당 부분이 현금 및 예치금으로 운용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만, 업권별로는 엇갈린 모습을 나타냈는데, 신탁과 새마을금고는 현금 및 예치금의 증가세가 크게 확대된 반면 상호금융은 감소하였다. '22년중 신탁과 새마을금고의 자산은 각각 20.3%, 17.3% 증가하였으며, 이 중 현금 및 예치금의 기여도는 각각 5.1%p, 7.9%p로 '20~'21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한편 상호금융의 '22년중 현금 및 예치금의 기여도는 -0.2%p로 나타났다. 이는 '21년 중순 이후 비은행예금기관과 은행간의 수신금리차가 축소⁷⁾되는 가운데 신탁과 새마을금고에 비해 비교적 수신금리가 낮은 상호금융에서 수신 증가세가 약화⁸⁾되어 대출 자원 일부를 보유중이던 예치금으로 조달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대출채권의 기여도가 높은 가운데 '22년중 현금·예치금의 기여도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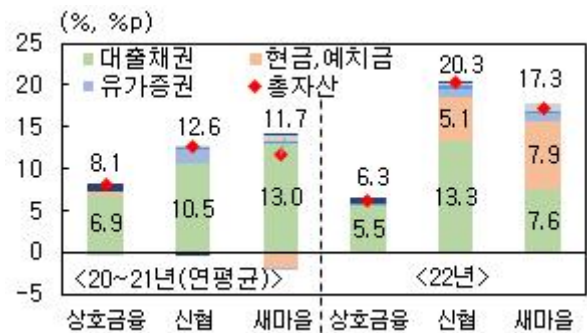
신탁,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현금·예치금의 증가세가 확대

<지역별 자산 증가율 분해¹⁾>



주: 1) 자산총계를 대출채권, 현금 및 예치금, 유가증권, 유형자산, 기타자산, 비신용사업계정으로 구분
자료: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업권별 자산 증가율 분해¹⁾>



주: 1) 자산총계를 대출채권, 현금 및 예치금, 유가증권, 유형자산, 기타자산, 비신용사업계정으로 구분
자료: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7) 비은행예금기관 수신금리는 '20.1월~'21.8월중 평균 1.25%로 은행 수신금리를 15bp 상회하였으나, '21.9월~'22.12월 중에는 평균 2.66%로 은행 수신금리를 7bp 하회하였다(신규취급액, 1년만기 정기예탁금, 전국 자료 기준).
8) 강원지역 상호금융의 수신 증가율은 '20~'21년평균 9.4%에서 '22년 5.6%로 낮아져 새마을금고(10.6% → 16.5%) 및 신탁(12.6% → 19.3%)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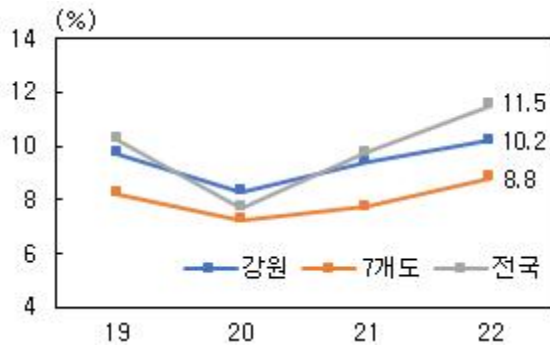
◆ 부채 및 자본 현황

8. '22년말 강원지역 비은행예금기관의 부채는 34.3조원으로 전년대비 10.2% 증가하였다.

부채 증가율은 '20년에 전년대비 하락하였다가 이후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 부채의 종류별 비중은 7개도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수신(예수부채)이 89.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이어 비신용사업계정(4.9%), 차입부채(4.6%) 순으로 나타났다.

7개도 부채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상회

<부채 증가율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수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부채 종류별 비중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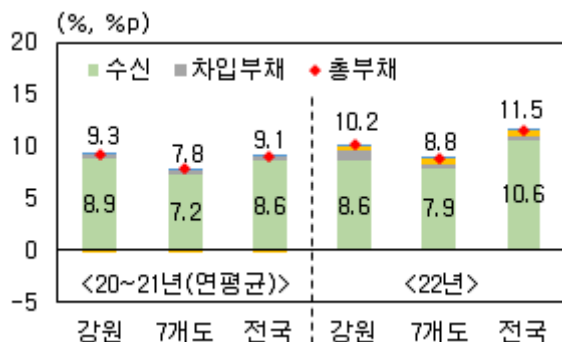


주: 1) '22년말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9. '22년중 부채 증가율을 구성항목별로 살펴보면 수신의 기여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1년중 연평균 부채 증가율은 9.3%로 이 가운데 수신이 8.9%p를 차지하였으며, '22년은 부채 증가율 10.2% 가운데 8.6%p가 수신 증가에 의한 것이었다. 업권별로 보아도 모든 업권에서 고르게 수신 증가가 부채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다만 '22년중 차입부채가 수신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⁹⁾하면서 차입부채의 기여도가 확대된 모습이다.

부채는 수신을 중심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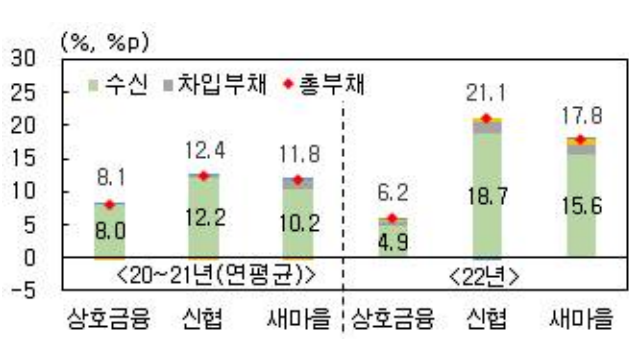
<지역별 부채 증가율 분해>



자료: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업권에서 수신의 기여도가 높은 수준

<업권별 부채 증가율 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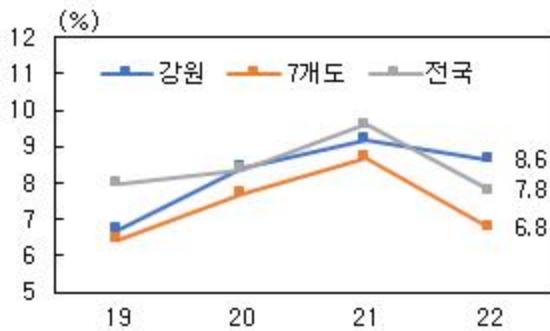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9) 전체 업권의 '22년중 차입부채 증가율(22.9%)이 수신 증가율(9.6%)을 큰 폭 상회함에 따라 부채 증가율에 대한 차입부채의 기여도는 '20~'21년중 0.4%p(연평균)에서 '22년중 0.9%p로 확대되었다.

10. 자본 측면을 보면, '22년말 강원지역 비은행예금기관의 총자본은 3.1조원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하였다. 자본 증가율은 '20~'21년중 확대되다가 '22년에는 소폭 낮아졌으며, 7개도와 전국에서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강원지역은 7개도 대비 빠른 자본 증가세가 지속되어 '22년에는 8.6% 증가하며 7개도는 물론 전국¹⁰⁾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업권별로 보면 전체 자본의 약 70%를 차지하는 상호금융의 증가율이 새마을금고 및 신협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7개도 자본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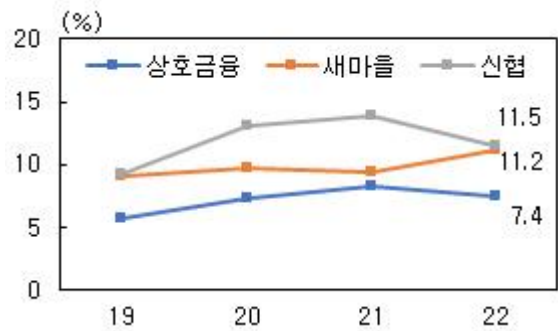
<지역별 자본 증가율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상호금융 자본 증가율이 비교적 낮음

<강원 업권별 자본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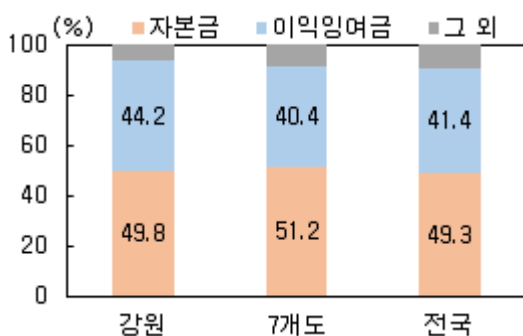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11. '22년말 자본 종류별 비중을 보면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이 각각 49.8%, 44.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익잉여금의 비중은 7개도 40.4%, 전국 41.4%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업권별로 보면 상호금융에서는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의 비중이 각각 45% 정도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신협에서는 자본금이 전체 자본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등 업권별로 구성이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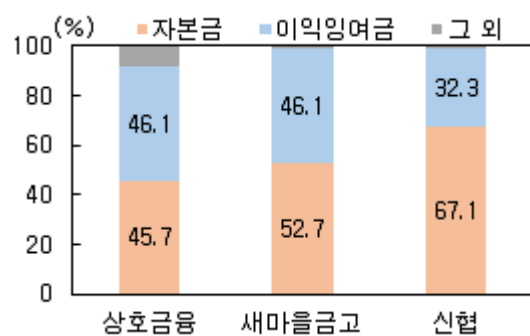
자본금 비중은 타지역과 유사한 수준이며 이익잉여금 비중은 다소 높음

<지역별 자본 종류별 비중¹²⁾>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이익잉여금 비중이 비교적 높음

<강원 업권별 자본 종류별 비중¹²⁾>



주: 1) '22년말 기준

2) 그 외 항목은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자본조정 항목의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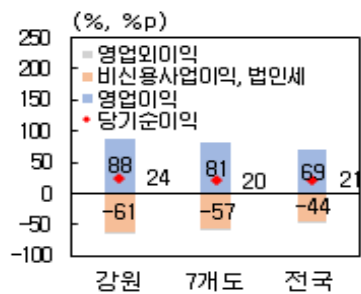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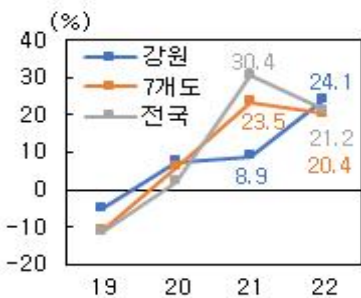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10) 같은 기간 7개도 자본 증가율은 8.7%에서 6.8%로 1.9%p 하락하였으며, 전국의 경우 9.6%에서 7.8%로 1.8%p 하락하였다.

◆ 수익 현황

12. '22년중 당기순이익은 2,083억원으로 전년대비 24.1% 증가하여 7개도(20.4%) 및 전국(21.2%) 증가율을 상회하였다. '21년에는 영업이익의 성장률이 9.5%로 7개도(13.6%) 및 전국(16.7%)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당기순이익이 8.9% 늘어나는 것에 그쳤으나(7개도 23.5%, 전국 30.4%), '22년에는 영업이익이 타지역 대비 빠르게 증가하면서(강원 55.2%, 7개도 44.0%, 전국 42.7%)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22년중 당기순이익 증가는 비신용사업에서 손실¹¹⁾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업권에서 이자수익이 늘어남에 따라 영업이익이 더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하였다.

'22년 당기순이익 증가율 비교적 높음 영업이익이 비신용사업의 손실을 상쇄 주로 상호금융에서 비신용사업 손실 발생
 <지역별 당기순이익 증가율 추이> <지역별 당기순이익 증가율 분해¹⁾> <강원 업권별 당기순이익 증가율 분해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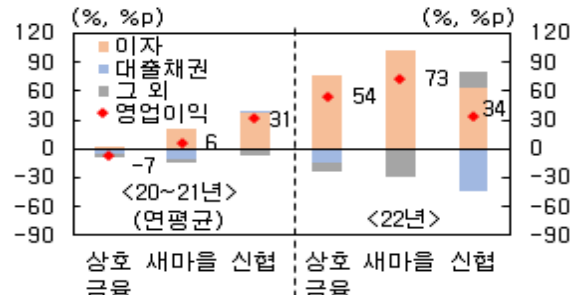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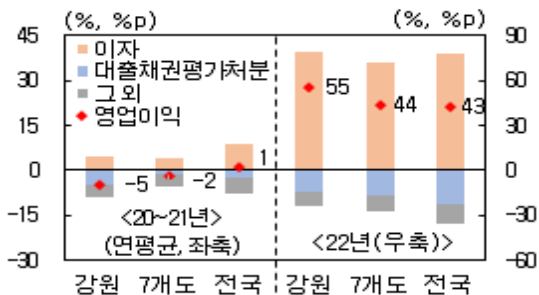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주: 1) '22년말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주: 1) '22년말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13. '22년중 영업이익은 이자수익의 큰 폭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55% 증가하여 7개도(44%) 및 전국(43%)에 비해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자수익은 대출규모 증가 및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개선되었다. 다만 대출채권 평가 및 처분 손실도 '21년 712억원에서 '22년 1,146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금리 상승에 따라 부실대출이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업권별로 보면 상호금융, 새마을금고의 경우 이자수익 증가로 영업이익 증가세가 큰 폭 개선되었으나, 신협의 경우 대출채권 평가 및 처분 손실이 타 업권 대비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영업이익 증가율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그쳤다('21년 31% → '22년 34%).

영업이익은 이자수익의 큰 폭 증가에 힘입어 증가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영업이익의 큰 폭 개선
 <지역별 영업이익 증가율 분해¹⁾> <업권별 영업이익 증가율 분해¹⁾>



주: 1) 그 외 항목은 유가증권평가처분손익, 수수료손익, 기타손익을 포함
 자료: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11) 농협의 영업외 비용(신용사업자금이자비용, 내부비용 등)이 증가하며 손실규모가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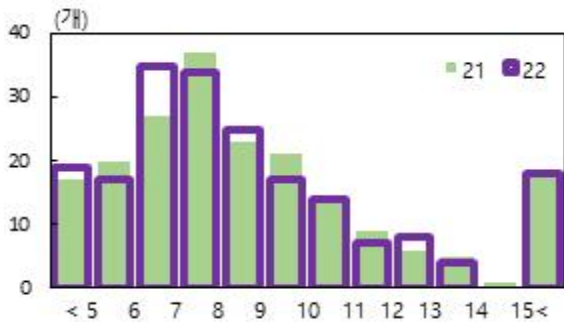
III. 경영지표 점검¹²⁾

◆ 자본적정성

14. 단순자기자본비율¹³⁾을 살펴보면 강원지역 비은행예금기관의 자본적정성이 소폭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비은행예금기관의 단순자기자본비율 중위값¹⁴⁾은 '22년말 기준 7.85%로 전년(7.97%)대비 0.12%p 하락하였다. 모든 업권에서 중위값이 하락하는 가운데 신협(-0.61%p)이 두드러졌다. 단순자기자본비율의 하락은 앞서 영업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2년중 비은행예금기관의 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자산 증가율(10.1%)이 자기자본 증가율(8.6%)을 상회한 데 기인한다.
15. 아울러 하위 분위 조합의 단순자기자본비율도 하락하면서 강원지역 비은행예금기관의 손실흡수능력이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22년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단순자기자본비율 하위 10%값¹⁵⁾은 4.77%로 전년(4.16%)대비 0.61% 상승하였으며, 상호금융(6.01% → 6.24%)과 신협(3.33% → 3.71%)에서도 하위 분위(10%) 조합의 자본적정성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나 비은행예금기관 전체의 하위 10%에 해당하는 단순자기자본비율은 '22년말 기준 5.09%로 전년(5.30%)대비 0.21%p 하락하였다. 이는 자본규제 강도¹⁶⁾가 낮은 업권(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규제수준을 초과하는 자본 확충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단순자기자본비율은 소폭 악화

<단순자기자본비율 분포>



자료: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하위 분위의 단순자기자본비율도 하락

<단순자기자본비율¹²⁾>

| | 하위 10%값 | | | 중위값 | | |
|------------|---------|------|-------|------|------|-------|
| | '21 | '22 | 변동 | '21 | '22 | 변동 |
| 전체 (198) | 5.30 | 5.09 | -0.21 | 7.97 | 7.85 | -0.12 |
| 상호금융 (103) | 6.01 | 6.24 | 0.23 | 8.35 | 8.32 | -0.03 |
| 신협 (39) | 3.33 | 3.71 | 0.38 | 7.78 | 7.18 | -0.61 |
| 새마을금고 (56) | 4.16 | 4.77 | 0.61 | 7.43 | 7.02 | -0.41 |

주: 1) '22년말 기준
2) ()내는 조합수

자료: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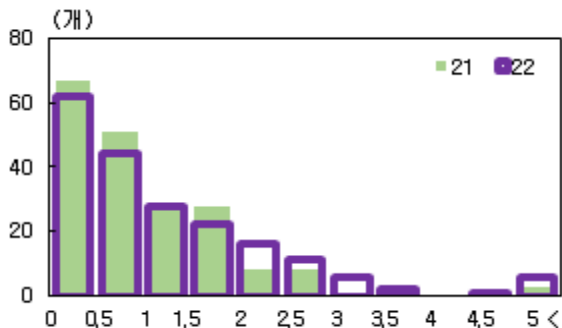
- 12) 주요 경영지표와 분석대상 경영지표 선정 관련 사항은 <참고> “사업보고서상 주요 경영지표” 참조하기 바란다.
- 13) 단순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A)을 총자산(B)으로 나눈 값(A/B)으로 정의한다. 자기자본은 부채와 달리 상환의무가 없어 금융기관의 손실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며, 이에 따라 단순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자본적정성이 양호하다.
- 14) 비율로 정의된 경영지표를 산술평균하는 경우 이상치에 의한 평균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위값을 활용하였다.
- 15) 전체 분포 중 하위 10%에 해당하는 자료의 값으로, 전체 분포 중 꼬리 부분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데 유용하다. 경영지표의 꼬리 부분은 금융위기의 가능성과 관련된다.
- 16) 현재 순자본비율 기준 농협은 5%, 신협·수협·산림조합은 2%, 새마을금고는 4% 이상을 각각 유지하여야 한다. 순자본비율은 순자본(A=자기자본-출자금+후순위차입금+대손충당금)을 총자산(B)과 대손충당금(C)의 합으로 나눈 값(A/(B+C))으로 정의하며, 순자본비율이 낮을수록 단순자기자본비율도 낮다.

◆ 자산건전성

16. 고정이하여신비율¹⁷⁾을 살펴보면 강원지역 비은행예금기관의 자산건전성은 악화되는 모습이다. 비은행예금기관의 고정이하여신비율 중위값은 '22년말 기준 0.94%로 전년(0.76%)대비 0.18%p 상승하였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는 악화된 반면 신탁은 개선된 모습이다. 상호금융은 0.98%로 전년(0.72%)대비 0.26%p, 새마을금고는 0.94%로 전년(0.77%)대비 0.17%p 상승하였다. 이는 연이은 금리인상과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인해 최근 대출자산의 부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17. 아울러 상위 분위 조합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더 크게 상승하면서 부실자산 증가에 따른 취약 금융기관의 손실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22년말 기준 비은행예금기관의 고정이하여신비율 상위 10%값은 2.73%로 전년(2.20%)대비 0.53%p 증가하였다. 특히 상호금융(2.09% → 2.89%, +0.8%p)과 새마을금고(1.92% → 2.45%, +0.5%p)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악화

<고정이하여신비율 분포>



자료: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하위 분위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더욱 악화

<고정이하여신비율¹²⁾>

| | 상위 10%값 | | | 중위값 | | |
|------------|---------|------|-------|------|------|-------|
| | '21 | '22 | 변동 | '21 | '22 | 변동 |
| 전체 (198) | 2.20 | 2.73 | 0.53 | 0.76 | 0.94 | 0.18 |
| 상호금융 (103) | 2.09 | 2.89 | 0.79 | 0.72 | 0.98 | 0.26 |
| 신탁 (39) | 2.81 | 2.72 | -0.09 | 0.77 | 0.65 | -0.12 |
| 새마을금고 (56) | 1.92 | 2.45 | 0.54 | 0.77 | 0.94 | 0.17 |

주: 1) '22년말 기준
2) ()내는 조합수
자료: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17)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체 여신(A)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여신(B)의 비중(B/A)이다. 부실 대출자산은 연체일수 등에 따라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구분되며,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낮을수록 자산건전성이 양호하다. 단, 새마을금고의 경우 순고정이하여신비율([고정이하여신-대손충당금]÷[전체여신-대손충당금])을 활용하였다.

◆ 유동성

18. 유동성비율¹⁸⁾을 살펴보면 강원지역 비은행예금기관의 유동성은 개선되는 모습이다.

비은행예금기관의 유동성비율 중위값은 '22년말 기준 81.6%로 전년(71.4%)대비 10.2%p 상승하였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상호금융, 신협 및 새마을금고 모두 유동성이 개선되었다. 특히 신협의 경우 100.5%로 전년(84.4%)대비 16.1%p 상승하였다. 향후 추가 금리인상과 경기둔화 장기화에 대비하여 개별 조합도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9. 하위 분위 조합의 유동성비율 역시 상승하였다. '22년말 기준 비은행예금기관의 유동성비율 하위 10%값은 49.1%로 전년(44.1%)대비 5.0%p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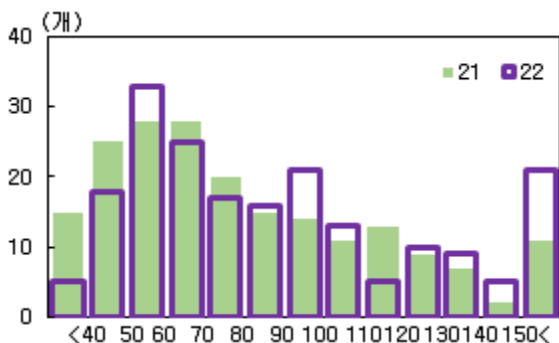
업권별로 살펴보면 새마을금고가 84.4%로 전년(51.5%)대비 큰 폭(32.9%p)으로 상승하였다. 상호금융(39.2% → 43.4%, +4.2%p)과 신협(47.9% → 56.7%, +8.9%p)도 전년대비 상승하면서 모든 업권에서 하위 분위 조합의 유동성이 개선되는 모습이다.

20. 한편 유동성비율 규제 도입에 따라 비은행예금기관의 유동성은 추가 개선될 전망이다.

'22년말 기준 유동성비율 100% 미만의 조합은 강원지역내 총 135개로 전체의 68.2%에 이른다. 이는 유동성비율 10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는 은행과 달리 비은행예금기관에 대한 유동성비율 규제가 현재로서는 부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은행 및 비은행예금기관간 유동성비율 규제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최근 감독당국은 '24.12월부터 비은행예금기관도 유동성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개선할 계획¹⁹⁾임을 발표하였다. 이에 비은행예금기관의 유동성비율은 향후 추가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유동성비율은 개선

<유동성비율 분포>



자료: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하위 분위의 유동성비율이 크게 개선

<유동성비율¹²⁾>

| | 하위 10%값 | | | 중위값 | | |
|------------|---------|------|------|-------|-------|------|
| | '21 | '22 | 변동 | '21 | '22 | 변동 |
| 전체 (198) | 44.1 | 49.1 | 5.0 | 71.4 | 81.6 | 10.2 |
| 상호금융 (103) | 39.2 | 43.4 | 4.2 | 61.0 | 61.6 | 0.7 |
| 신협 (39) | 47.9 | 56.7 | 8.9 | 84.4 | 100.5 | 16.1 |
| 새마을금고 (56) | 51.5 | 84.4 | 32.9 | 107.5 | 114.6 | 7.0 |

주: 1) '22년말 기준
2) ()내는 조합수
자료: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18) 유동성비율은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A)를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부채(B)로 나눈 값(A/B)이다. 단기 부채상환 능력을 나타내며, 유동성비율이 높을수록 유동성이 양호하다.

19) 「상호금융업감독규정」(상호금융·신협)과 「새마을금고법」(새마을금고)을 개정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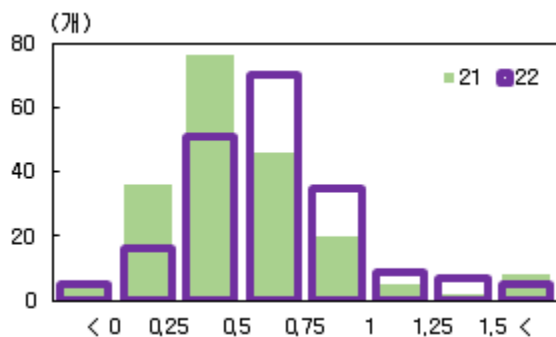
◆ 수익성

21. 총자산순이익률²⁰⁾을 살펴보면 강원지역 비은행예금기관의 수익성은 개선되는 모습이다. 비은행예금기관의 총자산순이익률 중위값은 '22년말 기준 0.59%로 전년(0.45%) 대비 0.14%p 상승하였다. 모든 업권에서 수익성이 개선되었는데, 특히 새마을금고는 '22년말 기준 0.64%로 전년(0.38%) 대비 큰 폭 상승(+0.26%p)하였다. 이는 금리인상에 따라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이자수익을 중심으로 수익이 상승한 데 주로 기인한다.

22. 하위 분위의 총자산순이익률도 상승하였다. '22년말 기준 비은행예금기관의 총자산순이익률 하위 10%값은 0.25%로 전년(0.17%) 대비 0.08%p 상승하였다. 업권별로도 모든 업권에서 수익성이 개선되었는데 특히 새마을금고는 '22년말 기준 0.28%로 전년(0.17%)대비 큰 폭(0.15%p)으로 상승하였다. 한편 '22년중 손실이 발생한 조합 개수는 총 5개로 전년과 동일하였다.

총자산순이익률은 개선

<총자산순이익률 분포>



자료: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하위 분위의 총자산순이익률도 개선

<총자산순이익률¹²⁾>

| | (%, %p) | | | | | |
|------------|---------|------|------|------|------|------|
| | 하위 10%값 | | | 중위값 | | |
| | '21 | '22 | 변동 | '21 | '22 | 변동 |
| 전체 (198) | 0.17 | 0.25 | 0.08 | 0.45 | 0.59 | 0.14 |
| 상호금융 (103) | 0.31 | 0.32 | 0.01 | 0.52 | 0.57 | 0.05 |
| 신협 (39) | 0.10 | 0.16 | 0.06 | 0.39 | 0.44 | 0.05 |
| 새마을금고 (56) | 0.13 | 0.28 | 0.15 | 0.38 | 0.64 | 0.26 |

주: 1) '22년말 기준
2) ()내는 조합수
자료: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20) 총자산순이익률은 당기순이익(A)을 총 자산(B)로 나눈 값(A/B)으로, ROA(Return to Asset)라고도 한다. 보유한 자산을 바탕으로 얼마만큼의 수익을 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총자산순이익률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양호하다.

◆ 재무건전성 종합평가

23. 주요 경영지표를 점검해 본 결과, 강원지역 비은행예금기관은 '22년중 유동성과 수익성이 개선된 반면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은 다소 악화되었다. 최근 하위 분위 비은행예금기관의 손실흡수능력이 약해지고 전 업권에서 대출자산의 부실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높은 대출금리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22년 하반기 이후 침체되었던 부동산경기의 반등세가 미약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대출자산의 추가 부실 가능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유동성비율은 개선되었지만 최근 미국 중소형은행이 유동성 위기로 파산하는 사례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대규모 예금인출 가능성도 점검하고자 한다.

유동성과 수익성은 개선되었지만,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은 악화

<비은행예금기관 주요 경영지표 종합¹⁾>

(%,%p)

| | 중위값 | | | 하위 10%값 ²⁾ | | |
|---------------------|--------|--------|---------|-----------------------|--------|---------|
| | '21(A) | '22(A) | 증감(B-A) | '21(A) | '22(A) | 증감(B-A) |
| 자본적정성 (단순자기자본비율) | 7.97 | 7.85 | -0.12 | 5.30 | 5.09 | -0.21 |
| 자산건전성 (고정이하여신비율) | 0.76 | 0.94 | 0.18 | 2.20 | 2.73 | 0.53 |
| 유동성 (유동성비율) | 71.4 | 81.6 | 10.2 | 44.1 | 49.1 | 5.0 |
| 수익성 (총자산순이익률) | 0.45 | 0.59 | 0.14 | 0.17 | 0.25 | 0.08 |

주: 1) '22년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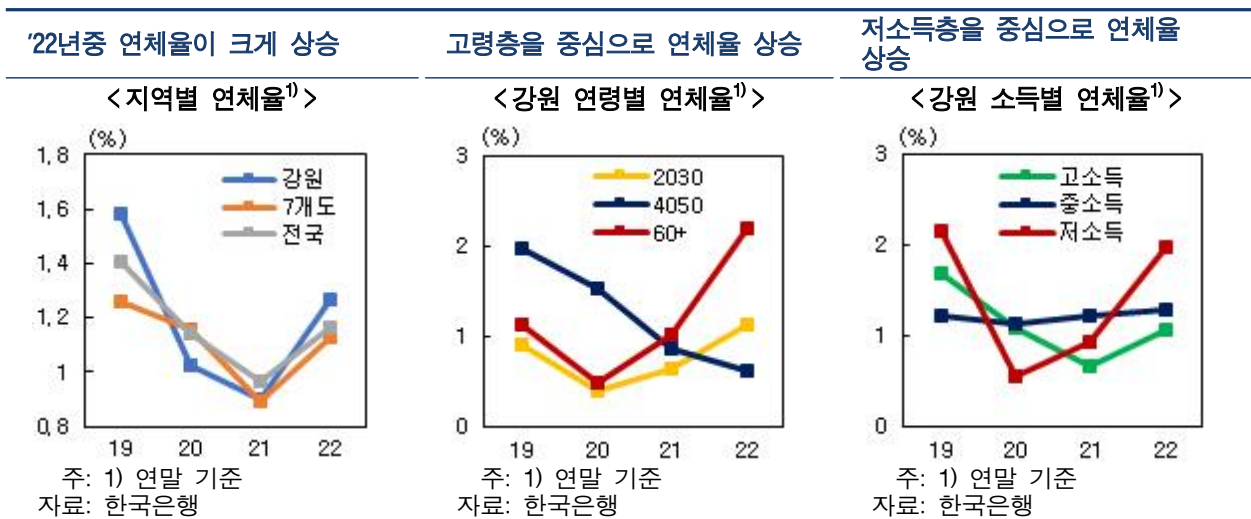
2) 자산건전성(고정이하여신비율)은 상위 10%값을 의미

자료: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IV. 주요 리스크 요인 점검

◆ 가계대출 부실 확대 가능성

24. 강원지역 비은행예금기관 가계대출 연체율²¹⁾은 7개도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며, 고령층과 저소득층의 연체율이 큰 폭 상승하였다. 한국은행 가계부채DB에 따르면 '22년말 기준 강원지역 비은행예금기관 연체율은 1.3%로 전년(0.9%) 대비 0.4%p 상승하였다. 이는 7개도 1.1% 보다 0.2%p 높은 수준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50대 연체율은 '19년말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 청년층(20~30대) 및 고령층(60대 이상)은 '21년 이후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 특히 고령층은 '22년말 기준 2.2%로 큰 폭(+1.2%p) 상승하였다. 소득별²²⁾로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연체율이 '20년말 이후 상승하여 '22년말 기준 2.0%로 나타났다. 고소득층도 '19년말 이후 연체율이 낮아지다가 최근 들어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25. 다만 취약차주²³⁾의 비중이 감소하는 가운데 이들의 연체율 오름세도 완만하다. '22년말 기준 강원지역 비은행예금기관 대출잔액 중 취약차주 비중은 5.7%로 전년(5.8%)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다. 취약차주의 비은행예금기관 연체율은 '20~'21년중 완화적인 통화정책 등으로 하락하다가 '22년중 6.4%로 전년(6.0%) 대비 0.4%p 상승하였다. 다만 7개도(6.6% → 10.6%) 및 전국(7.5% → 9.0%)보다 낮은 수준이며 상승세도 완만한 모습이다.

21) 연체율은 연체액(A)을 총 대출액(B)으로 나눈 값(A/B)으로, 30일 이상 채무불이행된 경우 연체대출로 분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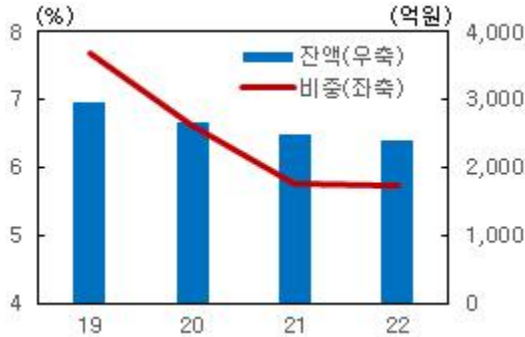
22) 소득분위에 따라 1~3분위는 저소득, 4~7분위는 중소득, 8~10분위는 고소득으로 구분하였다.

23) 취약가구는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 중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가구로 정의한다.

비은행예금기관 대출 중 취약가구 비중은 감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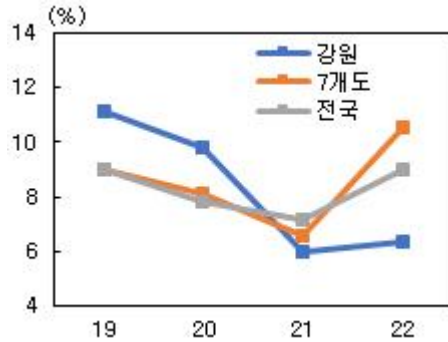
연체율은 타지역에 비해 완만하게 상승

<강원 취약차주 대출잔액 및 비중¹⁾>



주: 1) 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취약차주 연체율¹⁾>



주: 1) 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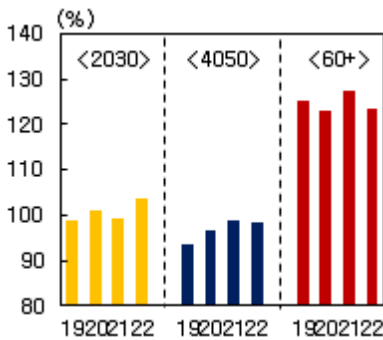
26. 한편 차주의 상환부담을 나타내는 LTI²⁴⁾를 살펴보면 고령층과 저소득층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데다 취약차주의 LTI도 최근 상승하는 모습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고령층(123%)에서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100%를 하회하던 청년층 LTI도 '22년 중 104%로 상승하였다. 소득별로는 저소득층 LTI가 172%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한편 강원지역 취약차주 LTI가 '22년 중 오히려 상승(76.4% → 78.6%)하였는데, 이는 7개도와 전국에서 취약차주 LTI가 '20~'21년 중 상승하다가 '22년 중 하락한 것과 대조된다.

고령층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청년층 LTI가 최근 상승

저소득층 LTI가 높은 수준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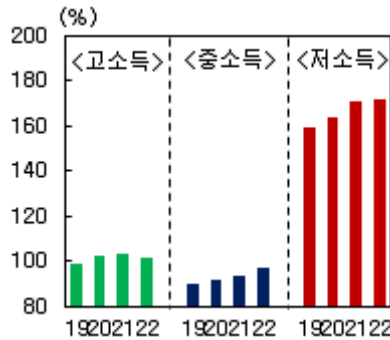
최근 취약차주 LTI가 타지역과 달리 상승

<강원 연령별 LTI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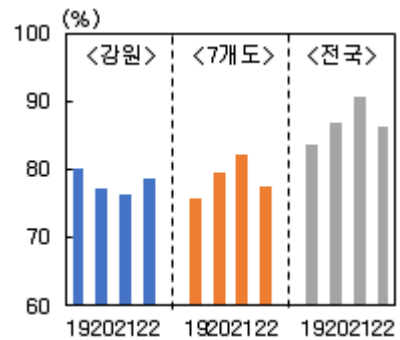
주: 1) 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강원 소득별 LTI¹⁾>



주: 1) 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취약차주 LTI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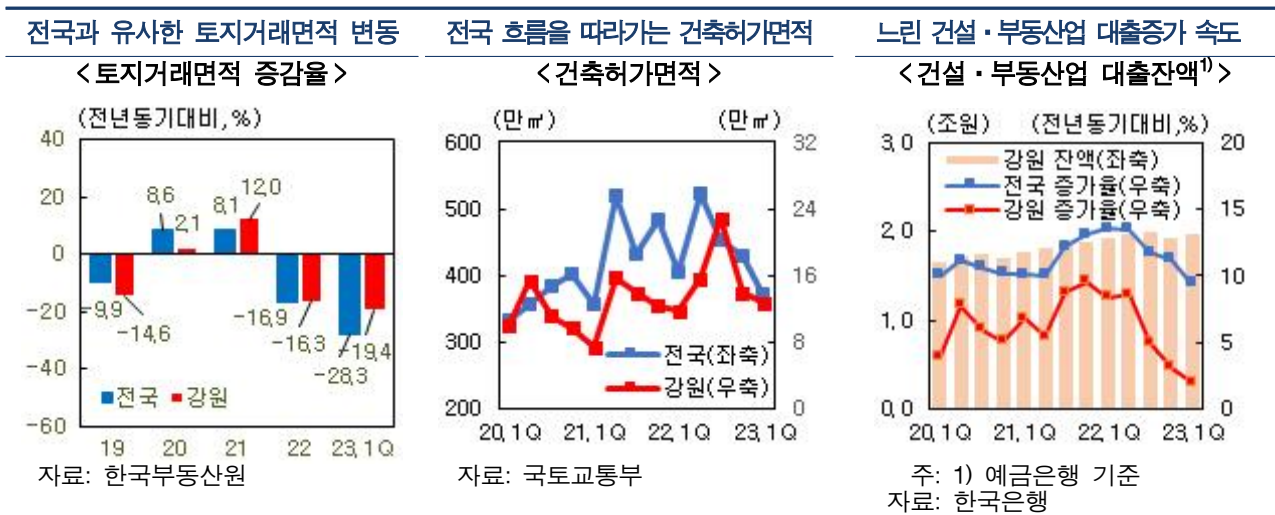
주: 1) 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27. 고령층과 저소득층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이들의 LTI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취약차주의 비중이 소폭 감소하고 연체율 오름세도 완만한 상황이나 타지역과 달리 LTI가 최근 상승하는 모습이다. 향후 경기회복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우 상환부담 증가로 인해 부실 대출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24) LTI(Laon to Income)은 전체 대출액(A)을 연간 소득(B)으로 나눈 값(A/B)으로, 차주의 부채 상환부담을 나타낸다.

◆ 부동산PF 부실화 가능성²⁵⁾

28. 강원지역의 부동산PF는 토지거래 실적과 건축허가면적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증가세를 밀돌았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PF²⁶⁾가 토지매입을 위한 브릿지론과 건축허가 이후 공사비 마련을 위한 본PF로 구성되므로 토지거래면적과 건축허가면적은 부동산PF 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 지표로 볼 수 있다. '22년 이후 강원지역의 토지거래면적은 전국 추세와 동일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었으며, 건축허가면적 또한 전국과 유사한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흐름으로 보아 강원지역의 부동산PF도 전국 부동산PF와 유사하게 움직였을 것으로²⁷⁾ 판단된다. 다만, 강원지역 은행의 건설·부동산업에 대한 대출(부동산PF 등)이 전국에 비해 느린 속도로 증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산PF의 증가세가 미약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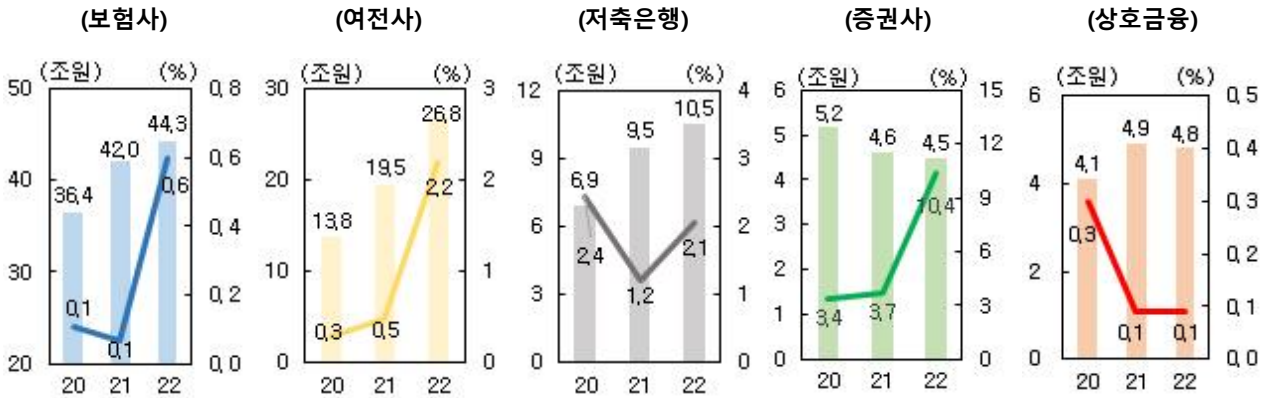
29. 강원지역 비은행금융기관 여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호금융의 부동산PF(전국 기준)는 다른 업권에 비해 규모도 작고 증가폭도 제한적이었다. 전국 기준 비은행예금기관의 업권별 부동산PF 잔액 및 연체율을 살펴보면 '22년말 기준 상호금융의 부동산PF는 4.8조원으로 증권사(4.5조원)를 제외한 다른 업권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연체율은 0.09%로 연체율이 가장 높은 증권사(10.4%)는 물론 상호금융을 제외한 비은행금융기관중 가장 낮은 연체율을 보이고 있는 보험사(0.6%)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또한, 다른 업권은 전년에 비해 부동산PF의 잔액이 늘거나 연체율이 증가한 것과는 달리 상호금융은 잔액이 감소하고 연체율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이는 '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PF의 부실 위험성이 제기되면서, 부동산 공동대출 중단 또는 제한 등을 통해 상호금융 자체적으로 부동산PF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5) 부동산PF 규모는 전국 단위 숫자가 연도별로 발표되어 지역 및 분기별 데이터는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부동산시장과 관련한 데이터를 살펴봄으로서 강원지역 부동산PF의 규모 및 부실가능성을 추정해보고자 한다.

26) 부동산PF는 자금조달 시점을 기준으로 브릿지론과 본PF로 나뉜다. 브릿지론은 토지매매 거래대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며, 본PF는 건축허가 이후 공사비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이다.

상호금융은 부동산PF가 감소하고, 연체율도 낮은 수준에서 유지

<비은행예금기관 업권별 전국기준 부동산PF 잔액 및 연체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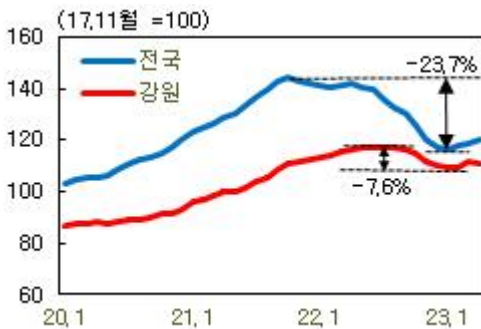


주: 1) 대출잔액(막대, 좌축), 연체율(꺾은선, 우축). 연말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30. 강원지역 비은행예금기관은 부동산PF 관련 리스크가 타지역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주택시장의 두드러진 회복이 나타나지 않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냉각되거나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등에 대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동산PF 관련 지표와 지역내 주요 비은행예금기관인 상호금융의 부동산PF 현황 등을 감안할 때 강원지역 비은행예금기관의 부동산PF 익스포저 수준은 타지역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아파트 가격의 고점 대비 하락폭(-7.6%)이 전국 대비 작은 점,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PF관리²⁸⁾, 최근 주택가격 전망(CSI)의 상승흐름 등을 고려할 때 지역 내에서 부동산PF 부실이 심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아파트가격 반등이 미약하고 미분양 주택 해소가 매우 완만하게 이루어지는 등 주택시장의 두드러진 개선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 상업용 부동산시장에서 상가 부동산의 공실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자본수익률이 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부동산PF 부실리스크는 상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강원지역 아파트가격은 고점대비 작은 하락폭을 시현

<아파트 가격지수>



자료: 한국부동산원

미분양 주택수 해소가 미약

<미분양 주택 및 주택가격전망CSI>



자료: 한국은행,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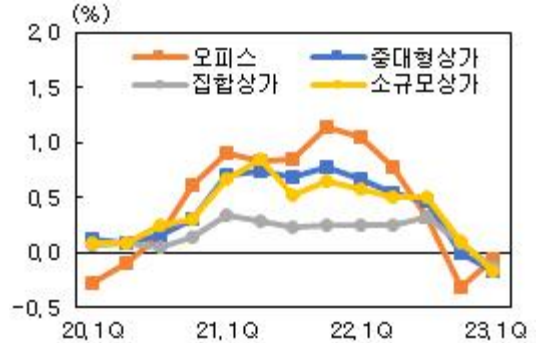
28) 증권사·건설사 대상 유동성 지원, 부동산규제 완화, 부동산PF 모니터링 단위 세밀화(금융사→사업장) 등

<상업용부동산 공실률>



자료: 한국부동산원

<상업용부동산 자본수익률¹⁾>



주: 1) 부동산 자산가치의 증감으로 인한 수익률
자료: 한국부동산원

◆ 대규모 예금인출 가능성

- 31. 강원지역 비은행금융기관은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일상적인 예금인출 요구에 대응할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22년중 유동성비율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가운데 유동성비율 규제기준 강화가 예고됨에 따라 향후에도 유동성이 꾸준히 개선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고객들의 예금인출 요구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더라도 상당 부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32. 다만 최근 예금보호한도²⁹⁾를 초과하는 예금이 증가하고 예금자들이 금리 수준에 민감하게 반응함에 따라 대규모 예금인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이전보다 높아졌다.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면서 비은행예금기관의 예금보호한도 초과 예금 비중이 계속 확대³⁰⁾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SNS의 발달과 비대면 거래의 활성화로 금융기관의 부실이 우려되는 경우 급격한 예금인출로 이어질 환경이 조성³¹⁾되었다.
- 33. 더구나 강원지역내 비은행예금기관 조합이 소규모인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는 경우 대규모 예금인출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융불안이 발생할 경우 소규모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대규모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저하될 수 있으므로 대규모 예금인출은 소규모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³²⁾ '22년말 강원지역 비은행금융기관의 조합별 자산은 평균 2,050억원으로 7개도(2,297억원) 및 전국(2,764억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자산이 1,000억원 미만인 조합의 비중도 24.1%로 타지역(7개도 13.9%, 전국 17.5%) 대비 높다. 조합원수 측면에서도 강원지역은 평균 2,945명으로 7개도(3,564명) 및 전국(4,221

29) 2001년 이후 현재까지 5천만원 한도가 유지되고 있다. 관련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보험료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 등으로 예금보호한도 증액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30) 5천만원 초과 예금 비중 : '12년말 30.8% → '17년말 38.5% → '22년말 56.2%. 단, 상호금융 중 농·수협 잔액 기준

31) 실제 '21년 회사채 시장 경색과 은행 수신금리 인하를 계기로 비은행예금기관으로 자금이 급격히 유입되었다.

32) 노진영(2023)에 따르면 미국 SVB은행이 파산한 '23.3월중 미 은행예금 순유출액(-4,700억달러)의 51.4%(-2,420억달러)가 중소형은행에 집중되었다.

명)에 비해 영세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향후 금융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강원 지역 비은행예금기관에서 소규모 조합을 중심으로 대규모 예금인출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산규모가 타지역대비 작은 수준

<조합별 자산규모¹⁾>

(억원, %)

| | 평균 | 비중 | | | |
|-----|-------|--------|-------|--------|--------|
| | | 5백억 미만 | 천억 미만 | 2천억 미만 | 2천억 이상 |
| 강원 | 2,050 | 5.1 | 19.0 | 49.4 | 26.6 |
| 7개도 | 2,297 | 3.2 | 10.7 | 51.8 | 34.4 |
| 전국 | 2,764 | 4.0 | 13.5 | 51.6 | 31.0 |

주: 1) '22년말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조합원수도 타지역대비 적은 수준

<조합별 조합원수¹⁾>

(명, %)

| | 평균 | 비중 | | | |
|-----|-------|--------|-------|--------|--------|
| | | 5백명 미만 | 천명 미만 | 2천명 미만 | 2천명 이상 |
| 강원 | 2,945 | 7.7 | 13.4 | 35.9 | 43.0 |
| 7개도 | 3,564 | 3.8 | 7.7 | 34.5 | 54.1 |
| 전국 | 4,221 | 4.9 | 9.1 | 31.0 | 54.9 |

주: 1) '22년말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V. 평가 및 시사점

34. 강원지역 비은행예금기관의 재무건전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최근 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부실자산이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경기둔화 장기화에 대비하여 현금과 예치금을 확충하면서 유동성도 제고되었다. 그러나 손실흡수능력이 약화되고 대출자산의 부실이 확대되는 등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35. 향후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긴축적인 금융여건이 지속될 경우 가계부채, 부동산PF 등이 부실화되어 자산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가계부채의 경우 저소득층과 고령층의 LTI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데다 취약차주 LTI도 최근 하락세로 돌아선 타지역과 달리 상승하는 모습이다. 대출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기회복이 늦어질 경우 가계대출의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 한편 부동산PF의 경우 강원지역의 부동산 관련 대출 증가율과 최근 주택시장 하락폭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부실이 심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향후 전국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하거나 부동산 자금시장이 경색될 경우 부동산PF의 부실이 악화될 수 있다.
36. 최근 손실흡수능력이 약화된 가운데 부실자산이 늘어나고 있는 강원지역 비은행예금기관의 경영상황을 감안할 때 시장충격 등에 대비하여 자산건전성 개선에 주력하여야 한다. 가계부채의 경우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고위험군의 부채 감축을 유도하는 등 잠재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부동산PF의 경우 지자체 및 비은행예금기관이 현재 시행중인 부동산PF 관리방안을 차질없이 지속해나가는 가운데 주택 및 상업용부동산 관련 지표의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함으로써 부실 증가 위험에 대비하여야 한다.
37. 특히 강원지역내 비중이 높은 소규모 조합의 경우 금융 불안시 대규모 예금인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의 발달로 대규모 예금인출이 급속도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특히 강원지역 비은행예금기관은 타지역 대비 소규모 조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는데, 소규모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대규모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저하될 수 있다. 그러므로 대규모 예금인출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개별 조합 차원에서 경영지표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등 예금자들의 신뢰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8. 한편 강원지역 비은행예금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금융 불안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은행예금기관 경영자료의 접근성과 수집용이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비은행예금기관은 개별 조합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세부 자료를 수집하는 데 충분한 자원을 투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지역에서 비은행금융기관 부실은 서민들의 안정적인 금융거래를 제한하며, 자칫 대규모 예금인출로 이어질 경우 예금자들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비은행예금기관의 경영상황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관련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감독당국, 중소기업지원 및 정책연구기관 간 정보공유 채널을 구축하고 TF 구성 등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참고>

사업보고서상 주요 경영지표

□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유동성 및 수익성 측면으로 구분된다. 각 부문의 주요 경영지표 중 공시 및 수집 여부, 대표성 등을 감안하여 단순자기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유동성비율 및 총자산순이익률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구분 | 경영지표명 | 자료 접근성 ¹⁾ | | 건전성 판단 |
|-------|------------------------------|----------------------|----------|---------|
| | | 상호금융, 신탁 | 새마을금고 | |
| 자본적정성 | 순자본비율 | △ | ○ | 높을수록 양호 |
| | 위험가중자산대비자기자본비율 | X | ○ | |
| | 단순자기자본비율 | ◎ | ○ | |
| | 총자본비율 | △ | X | |
| 자산건전성 |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 △ | ○ | 낮을수록 양호 |
| | 고정이하여신비율²⁾ | ◎ | ○ | |
| | 연체대출금비율 | △ | ○ | |
| 유동성 | 유동성비율 | ◎ | ○ | 높을수록 양호 |
| | 고정자산비율 | ◎ | ○ | 낮을수록 양호 |
| 수익성 | 총자산순이익률 | ◎ | ○ | 높을수록 양호 |
| | 수지비율 | ◎ | ○ | 낮을수록 양호 |
| | 총자산경비율 | ◎ | ○ | |

주: 1) ◎는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open API를 통해, ○는 웹 크롤링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나타낸다.

△는 공시되었으나 수집이 어려운 자료를, X는 미공시자료를 나타낸다.

2) 상호금융, 신탁은 고정이하여신비율을, 새마을금고는 순고정이하여신비율을 공시한다.

< 참고문헌 >

- 김혜연 외,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리스크 평가’,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년 12월
- 나성오 외, ‘비은행금융기관의 부동산 PF 리스크 평가’, 금융안정 상황, 한국은행, 2023년 3월
- 나성오, 박지수 외,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잠재리스크 점검’,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3년 6월
- 노유철, 김재영 외, ‘가계부문의 부실위험 점검 및 대응방향’, 금융안정 상황, 한국은행, 2023년 3월
- 노진영, ‘최근 미 은행사태 이후 은행업계 변화 및 영향’,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2023년 4월
- 박재현 외), ‘주택시장 관련 주요 금융안정리스크 점검’,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3년 6월
- 안지훈, ‘강원지역 비은행금융기관 자산운용 현황’, 한국은행 강원본부, 2018년 7월
- 한겨레신문,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 130조원... 증권사 연체율 10.38%’, 2023.4.7일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http://stat.molit.go.kr/>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http://fisis.fss.or.kr/>
- 새마을금고 중앙회, <http://kfcc.co.kr/>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http://reb.co.kr/r-one/>